

## 오슈쿠테이

이 오래된 찻집은 1916년에 지어졌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주로 도키와칸 여관과 가마고리 여관(현재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)의 투숙객들을 위한 다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 손님들은 근처의 6면으로 된 롯카쿠도 건물에서 기다렸다가 작은 찻집(자시쓰)과 더 큰 대기실로 나뉘어져 있는 오슈쿠테이의 다회에 참여합니다. 더 큰 방은 하룻밤 숙박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카와 만이 내려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습니다.

대기실은 다실풍 서원 스타일로, 미완성 통나무 표면과 투박한 점토 벽과 같은 찻집 건축의 측면과 장식용 도코노마 벽감, 장지문, 다다미 바닥재를 포함한 일본식 방의 전통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. 훨씬 더 작고 소박한 찻집은 정원에서 들어올 때 손님들이 기어갈 수 있는 낮은 문이 특징적입니다. 이 디자인은 사무라이들이 다회에 참석하기 위해 칼을 빼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, 현재까지도 찻집 건축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.

오슈쿠테이는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호텔 투숙객들은 2025년부터 이 건물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.